

SAMSUNG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  
**Galaxy S8 | S8+**

MarketIndex <17일>	2판
코스피지수	2293.08 -2.25
코스닥지수	640.01 +0.90
국고채금리 (3년물, 연%)	1.684 -0.033
환율 (원·달러)	1118.30 +2.30
원(100만)	995.64
원유	1243.33
일본 닛케이	19,814.88(-104.94)
WTI(유가)	48.66달러(-0.19)
글로벌 투자 파트너	미래에셋대우

# 한국경제

2017년  
5월 18일 목요일  
hankyung.com

제16849호 | 대표전화 02) 360-4114

## 부활하는 'Made in Japan' ... 한국은?

##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아베, 법인세 인하 지원 사격  
1년새 98개 기업 일본 유턴  
한국은 "수도권엔 오지마라"



43.8%까지 떨어졌다. 아베 정부는 인건비 상승 등 해외 현지 시장이 나빠지자 발 빠른 지원에 나섰다. 대대적인 인화 약세 정책을 시행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율은 2013년 36%대에서 32.11%로 낮췄다.

해외에 공장을 둔 일본 제조업체들이 속속 자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생산비용 절감과 현지화를 명분으로 앞다퉀 외국으로 공장을 옮겼다가 유턴하는 추세다. 현지 인건비가 급등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자산 줄이는 일본 기업 (단위: 억달러)  
일본 기업 해외법인 유형고정자산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과 당면과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공장이 있다고 응답한 834개 기업 중 98개(11.8%)가 지난해 생산시설을 일본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98개 기업 중 66.2%는 중국과 홍콩에 있던 생산시설을 이전했다. 이어 태국(8.5%) 베트남(4.3%) 인도네시아(4.3%) 등에 뒀던 공장을 옮겨왔다.

한국 정부도 해외로 나간 기업에 대해 2013년부터 유턴을 유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못 내고 있다. 회귀를 타진한 기업이 최근 3년간 80여 곳에 달했지만 실제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43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진입 규제, 강성 노조, 고임금·저효율에 막혀 오히려 유턴을 후회한다는 목소리마저 들린다.

첫 여성 보훈처장 피우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사진)를 지명했다.

조원욱 인사수석은 이날 춘추권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공정위원장에 김 교수를 지명한 것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라며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노사정위원회의 경제개혁소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사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맡아 공정위 조속국 부활과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해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그는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를 설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선 발표 후 "시장경제를 지키고 공정하게 하는 데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서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 큰손들, 해외 대체투자에 연내 20兆 푼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국내 최대 대체투자 포럼인 'ASK 2017 글로벌 사모·헤지펀드 서밋'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 23개국 투자전문가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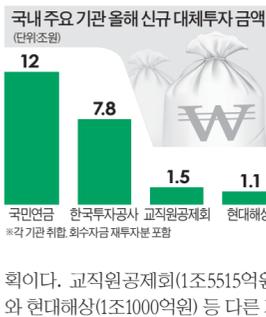
### ASK 2017 국내 최대 대체투자 포럼 개막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한국 '큰손'들이 올해 약 25조원을 대체투자 시장에 투입한다. 이 가운데 80%인 20조원가량이 해외에 투자될 전망이다. 해외 우량기업의 추가연계 사채(ELB)와 중소기업 전문 사모펀드(PEF), 중위험·중수익을 노리는 사모대출펀드(PDF) 등이 유망 투자처로 꼽혔다.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17 글로벌 사모·헤지펀드 서밋'에 참가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밝혔다.

▶관련기사 A4, 5면

국내 양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과 KIC는 각각 12조원과 70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대체투자에 할당할 계



관과 보험사가 올해 신규로 대체시장에 투자할 금액도 5조원에 달한다. 기관들은 저금리 시대에 주식, 채권 같은 전통자산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체투자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은성수 KIC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대체투자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23개국에서 투자전문가 700여 명이 참가했다.

정영호/김대훈 기자 hugh@hankyung.com

## 문대통령 '검찰 개혁' 칼 뽑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검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검찰을 지시했다.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을 앞두고 검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은 지난달 21일 술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서 검찰국장 안태근과 특별수사본부 수사장들에게 50만~100만원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 처음으로 방문,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며 "취임 1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그만큼 우리 인보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경부동산 ▶B1-8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우리집

▶C1-8면

# 매달 월세 나오는 새만금 토지에 투자하라!

3천만원 = 330㎡ (토지등기이전 + 매월 45만원 월세 현재 지급 중)

최고의 미래투자 토지와 수익형 부동산의 결합! 연세 약 18%

01 안정성

계약 즉시 토지 등기 이전, 임대차 계약 10년 체결, 법적 공증서 발행, 광업권자와 임대계약 체결

02 투자가치

새만금 사업 각종 건축 토목현장 등, 수요처가 다양하며, 군산 일대에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 군산 일대 특장적인 재개발 생산 능력을 갖춘 사업체

03 수익률

총 3천만원 투자 시 10년간 임대료 매월 45만원, 연 540만원 현재 지급 중

04 입지조건

금강 하구의 뛰어난 경관의 위치, 군산IC에 근접한 거리 위치, 2차선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10년 후 부동산 가치가 높을 것이 예상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현장 사진



새만금 속도전 기대감

새만금 인근 명갈 물벽

개발 속도 빠른 새만금... '명 매입 문의 1년새 두배 늘어'

신상금 및 계약금 계좌번호

농협 317-0009-7286-61  
예금주 (주)디에스지원개발  
신상금 100만원, 선착순 마감 (미개시신상금 전액 환불)

상담 문의

02) 555-9322

광업권 취득 완료!

광업권	총 분양금	월세 지급 중
광업권이란 국가가 부여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0,000,000원 (330㎡)	450,000원
	60,000,000원 (660㎡)	900,000원
	90,000,000원 (990㎡)	1,350,000원

40만원 상당 아로니아 화장품 세트 증정 (선착순에 한함)